

주연 클로즈업 대신 조연을 담은 사진들

October 5, 2021 | 박지현 기자

Page 1 of 1

박찬욱 사진전 '너의 표정'



어떠한 편집도 연출도 필요하지 않는 찰나의 순간. 그곳에서 그는 자유를 얻었다. 완벽을 추구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 그 출가분함을 안고 그가 스쳐 지나온 행로를 사각의 프레임에 담았다. 거장이 바라본 순수한 시선이다.

영화감독 박찬욱(58·사진)이 10월의 첫날 그의 인생 첫 단독 사진전을 열었다. 1992년 영화감독으로 데뷔해 '올드보이'와 '박쥐' 등으로 칸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오른 그는 지난 2016년 영화 '아가씨'를 만드는 동안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을 엮어 '아가씨 가까이'라는 사진집을 냈고, 2017년 개관한 서울 용산 CGV 아트하우스의 '박찬욱관' 입구에는 '벌신론'이라는 제목으로 너답에 한번씩 6점의 사진을 교체 전시하는 등 그간 자신의 사진 작품을 조금씩 공개해왔다. 동생인 박찬경 작가와 '파킹찬스(PARKing CHANce)'라는 팀을 꾸려 순수미술의 영역에서도 다양한 행보를 보여왔던 그가 처음 공식적으로 '사진작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섰다.

지난 1일 국제갤러리 부산에서 만난 박찬욱 감독은 날카로운 눈빛을 조금 멀어낸 순수한 눈빛으로 관람객들 앞에 섰다. "오늘만큼은 영화감독이 아니고 사진을 하는 사람으로서 왔다"고 수줍게 웃은

주연 클로즈업 대신 조연을 담은 사진들

박 감독은 "영화 공부를 본격 시작하기 전에 사진부터 시작했고 대학 때부터 열심히 배우고 찍었다"며 "영화인으로서 정체성도 있지만 스스로 사진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도 따로 갖고 있다고 느껴왔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는 그의 일터인 영화 촬영 현장을 비롯해 여행지, 집과 사무실 등 그의 일상에서 포착한 사진 30여점을 전시했다. "제 이름이 없이 사진만을 보면 영화와 연결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박 감독은 "가명을 써 전시를 할까 싶기도 했지만 영화와 사진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분명으로 전시를 하게 됐다"며 "영화에서 늘 사람을 대상으로 촬영을 하는데 사진에서는 일부러 피했던 것 같다. 사람은 거의 안 보이거나 작게, 신체의 일부만 보이고 주로 사람이 주인 공간인데 그 순간 저와 사람이 교감하면서 발견한 표정을 보여드리고 싶어 전시의 제목을 '너의 표정(Your Faces)'이라 지었다"고 말했다.

전시장에 내걸린 사진 속 대상들은 어쩌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때론 여행지에서 누구나 스쳐 지나가면서 찍을 수도 있는 풍경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느껴진다. 주인공이 아닌 조연과 같은 사람들이 가득하다. 사위실 한 구석에서 잠잠 팔라라고 녹아가는 비누의 모습과 매마른 땅에서 생을 향해 갈구하는 마른 관목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궁금해진다. "사물과 나만의 1대 1, 사적인 대화인데 관객들도 각자의 시간 속에서 이 사진과 대화할 수 있겠죠. 이게 영화와는 다른 사진의 매력인 것 같다"고 말한 박 감독에게 이번 전시를 대표할 작품 하나를 꼽아 달라 요청했다니 '패이스 183'을 꼽았다. "이주 볼품없는 관목인데, 일반 각도보다 조금 낮은 각도로 촬영을 했어요. 나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조명을 받고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순간을 담고 싶었습니다." 전시는 12월 19일까지. 박지현 기자